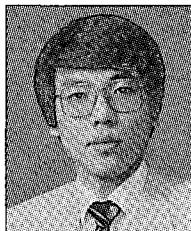


보철 치료시 발생될 수 있는 치아 민감성에 대하여

한중석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연자약력

1983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9	: 미국 미시간치대 보철과 수련 및 석사
1993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
1993~현재	: 이화의대 치과보철과 교수

일상의 임상에서 치아부위의 민감성을 호소하는 환자와 흔히 접하게 된다. 이에 관한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치수 및 치주조직의 신경말달에 자극이 가해짐으로 발현되기 쉽다. 그 중 치수와 관련된 민감성은 치수를 보호하는 치질의 소실에 의한 원인이 주가 된다.

이의 원인으로 기계적, 화학적, iatrogenic 원인을 열거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치료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개방된 상아세관의 dentin fluid가 외부의 온도변화 및 화학물질등에 의한 삼투압의 변화로 이동하여 생기는 hydrodynamic theory가 가장 유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출된 상아세관의 효과적인 폐쇄방법이 권장된다. 여기에는 약제를 이용하여 상아세관내 침전물을 만들어 개방된 세관을 막는 방법과 세관을 bonding agent 또는 수복물로 봉쇄하는 방법등이 임상적으로 추천된다. 또한 수복치료를 위한 치질의 삭제가 동반되는 임상술식이 사용되는 고정성보철물인 경우 각 과정에서 치수자극 및 치질의 소실, 변연봉쇄가 주 관심사가 된다. 치료중에 민감성을 잘 쳐치하지 않는 경우 종종 최종 cement 합착 후 민감성 및 치수의 지속적인 병변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각과민의 원인 및 치료법을 살펴보고, 보철치료 과정시 치아삭제, 임시치아제작, 인상채득시의 약제사용, 교합, cementation과정에서 민감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